

## OC교계 “튀르키예 향한 관심과 사랑 계속 돼야”

튀르키예와 시리아지역 대진진 참사를 위해 긴급 구호모금을 실시했던 오렌지카운티 교계 연합은 지난 22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튀르키예 현지 상황 보고와 함께 구호기금 전달 내역을 공개했다.

OC교계기관들이 연합으로 실시한 긴급 구호 모금에는 총 11만 4천190달러가 모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10만 달러는 최근 튀르키예를 방문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OC교계기관을 대표해 현지 사역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나침반교회가 1만 1천690달러를 튀르키예 S 선교사에게, O.C.전도회 연합회가 1천 500달러를 튀르키예 N 선교사에게, O.C.교협이 1천 달러를 튀르키예 N 선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튀르키예를 방문한 한기홍 목사는 참혹한 지진 피해 현장을 소개하면서 “현지에서는 이번 지진을 통해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건물에 매몰된 시신이 너무 많고, 전쟁보다 더한 어려움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집과 가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목사는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긍휼함을 사모하기 시작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구호금 전달 상황 보고 및 기자 간담회 ©기독일보

지금 중동 선교의 적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 목사는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의료 지원과 아이들의 교육을 꼽았다. 생필품은 정부나 NGO 단체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지만 학교가 무너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거

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점통을 방불케 하는 간이텐트의 냉방 시설을 비롯해 화장실, 샤워 시설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지에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작업과 컨테이너를 집으로 개조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한기홍 목사는 이번 튀르키예 방문에서 구호 물품을 보관하며 참고 사역을 하는 현지 선교사들에게 1만 7천5백 달러, 텐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1만 5천 달러, 지진 피해 교회 공동체 회복 사역을 하는 J선교사에게 1만 달러,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사역을 하는 K 선교사에게 5천 달러,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주민들을 돕는 S 선교사에게 5천 달러를 전달하는 등 현지 선교사들과 의논해 사역이 검증된 선교사들에게 10만 달러를 온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OC 교협 회장 삼상은 목사는 “OC 모든 교계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튀르키예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기쁨과 사랑으로 기금 모금에 동참한 교회와 기관, 개인과 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금에 동참한 기관과 교회, 개인은 엘벤펠교회 \$300, O.C. Grace Church \$300, O.C. 새길교회 \$400, TB2G, Inc \$1,000, 정원명 \$1,250, 주안예교회 \$2,000, 웨마여성목사회 \$500, 순복음제자교회 \$300, O.C. 목사회 \$500, O.C. 여목사회 \$200, 세리토스 중만교회 \$500, CBSTV \$3000, O.C. 한인회 \$3,300, 은혜한인교회 \$60,000, 미주복음방송 \$25,000, O.C. 교협 \$2,450, O.C. 전도회 연합회 \$1,500, 나침반교회 \$11,690 등이다.

김동욱 기자

## UMC, 탈퇴측 교인 담아낼 ‘대안교회’ 신설

###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두 곳, ‘라이트하우스 회중’ 설립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보수 교회들의 탈퇴로 인해, 두 지역 연회가 교회가 사라진 신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해 249개 교회가 노스캐롤라이나(NC) 연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 이후 41개 교회가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WNC) 연회를 떠났다.

이에 따라, 두 지역 연회는 새 교회를 찾지 못한 교인들을 위한 대안교회인 ‘라이트하우스 회중(Lighthouse Congregations)’을 올해 초 설립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가너에 본부를 둔 NC

연회는 현재 77개 교회가 속해 있으며, 헌터스빌에 본부가 있는 WNC 연회는 55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WNC 연회의 교회 개발 책임자인 립 허친슨 목사는 CP에 “추가로 교인 60명이 이 프로그램을 위한 훈련을 완료했으며 프로그램이 성장하고 있다”며 “15개의 다른 연회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공유했다”고 했다.

허친슨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의 개념은 그가 작년 10월 플로리다 연회의 스티브 하퍼 목사와 나눈 대화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 개념을 “각 연회의 필요와 자원에 적합하도록 틀 안에 융통성을 넣은, 여러 연회 간의 진정한 공동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라이트하우스의 목적이 “독특하고

힘든 시기에 탈퇴로 인해 집을 잃고, 연합감리교인으로 남아 교회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특별히 준비된 교회와 연결할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C 연회의 첫 라이트하우스 회중교회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워싱턴에 위치한 ‘워리스 chapel 연합감리교회(Ware’s Chapel United Methodist Church)’이다. 이 교회는 탈퇴측 교인 30명 이상에게 영적 안식처를 제공해왔다.

또 다른 라이트하우스는 뉴퍼트에 위치한 앤 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Ann Street United Methodist Church)가 있다. 1820년에 처음 건물을 세운 이 교회는 2022년 매주 평균 119명이 현장 예배에 참석했으며, 54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뉴퍼트에 있는 앤 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UMC에 남기로 결정하자 일부 교인들은 앤 스트리트를 떠났지만, 지난 부활절 주일에 250명 이상이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지오앤디교회  
Go&Disciple Church

#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1)

**2023 지오앤디 교회 부흥집회** 초청목사: 임진혁 목사 (마가의 다락방 교회)  
5.19 (금 / 8PM) 5.20 (토 / 7PM) 5.21 (일 / 12:30PM)  
GO&D (지오앤디) CHURCH 3021 BLUME DRIVE ROSSMOOR CA 90720  
문의전화: (714)745-8044, (562)656-4175



#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기 정체성 기준.. '성경·가정'

## 제10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제 10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그림 &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22일(토) 오후 2시 하나교회(담임목사 박종기)에서 진행됐다.

1부 개회예배는 카일 박 찬양사역자의 찬양인도에 이어 효사랑선교회 부대표 남승우 목사가 기도 했으며, 국민의례 이후 폴 임(Paul Ym) 목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환영인사에서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는 "다음 세대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기 정체성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가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와 그림 공모전 10회를 맞이

하면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서두를 뒀다.

이어 김 목사는 "감사한 것은 이 공모전 시상식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분명한 정치인들이 함께 격려와 칭찬으로 상장도 수여해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모전이 타주에서까지 참여하는 등 더욱 발전하게 됐습니다. 각 교회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많은 대화 가운데 정체성 확립이 이뤄지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길 기도합니다"라고 권면했다.

이어 O.C. 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와 O.C. 한인회 회장 조봉남 장로가 축사를 전했다. O.C. 목사회 증경회장 추원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는 마쳐졌다.

2부 축하공연 및 시상식에는 유수진 전도사의 찬양과 더불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이어졌다. 글짓기 부분에는 라마 민 작가, 그림 부분에는 주아라 뉴아트아카데미 디렉터



효사랑선교회 제 10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글짓기 & 그림 공모전 시상식

가 공정한 심사 기준을 평하면서 글짓기 부분에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7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학생 3명과 히스패닉 크리스천 대안 학교 학생 12명에게 특별상이 주어졌다. 킨더거든 3명에게는 드림머 상이 수여 됐으며 이외 40명에게 장려상이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크리스천으로 정체성의 롤모델인 영 김 연방하원 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최은애 보좌관이 참가해 청소년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와 칭찬으로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효사랑 선교회 스럽들에게도 봉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김민선 기자



BTS 솔라디자인 엘에이 한인타운 확장이전 감사예배

BTS 솔라디자인(대표 폴킴)이 엘에이 한인타운에 오피스를 마련하고 확장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폴 킴 대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며 "가장 좋은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솔라사업을 시

## BTS 솔라디자인, 한인타운 오피스 마련

작하게 하였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를 위한 믿음의 기업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1일 오전 11시 새 사옥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조철민 목사 인도로 안드레슨 선교사가 대표기도하고, 시편 1장 1-3절을 본문으로 마가교회 담임 채동선 전도사가 "복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채 전도사는 "성경은 때와 시간을 따라서 열매를 맺힌다고 말한다"면서 "여름의 때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초라한 가을과 혹독한 겨울이 있기에 봄이 있을 수 있다. 보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오늘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기억하고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채 전도사는 "솔라라 빛이다. 빛이 있어야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심령도 말씀의 빛이 비추고 그 빛으로 충만해 질 때 건강해 질 수 있다"며 "BTS 솔라디자인이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믿음의 기업이 되라"고 권면했다. 모든 예배는 제이콥 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BTS 솔라디자인은 교회 전문 솔라업체로 타사대비 30%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올해도 인상되는 전기료는 교회의 큰 부담이다. 솔라설치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LA :213-500-8000, OC :714-702-0151

김민선 기자

## 튀르키예 봉사팀으로 간 류당열 목사, 최고령 봉사자로 섬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 남가주지회의 후원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튀르키예 지진 지역 선교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류당열 목사는 "지난 1997년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반주자의 찬송가 연주 가운데 '배 타고 떠나라'

는 구절을 듣고 순종해 의료봉사를 나선 적이 있다"며 "이번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다시 한번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의료봉사 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국 봉사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80세의 류 목사는 사도 바울의 선교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지진 지역에

서 설거지 및 청소 담당으로 배정받고 열심을 다했다.

또한 현지 선교사에게 선교금 6천불을 전달했으며 네덜란드, 미국 콜로라도, 튀르키예 현지인 등 5명에서 각각 100불씩 현금에 총 6천 5백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영양제, 잠옷, 식료품, 신발 등 구호품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김민선 기자



튀르키예 지진 현장 봉사활동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은 소중한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그랜비버스 USA 이사장  
(현)남가주 고미업의회 고문 변호사  
(현)제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 “미주 한인 사회 큰 별 지다” 박희민 목사 별세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 재단 이사장이자 새생명선교회 대표 박희민 나 성영락교회 은퇴목사가 오늘(26일) 오전 3시 향년 86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전립선암 재발로 고생하던 박희민 목사는 암이 전이돼 투병생활하던 중 자택에서 별세했다.

아들 피터 박은 “아버지는 어젯밤 새벽 3시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아버지는 그가 살았던 아름답고 축복받은 삶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멋진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1936년 충남 예산에서 교육자 집안의 4남2녀 중 4남으로 태어나 김천고등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학 사학과를 수석졸업했다. 1968년 에티오피아 선



故 박희민 목사

교사로 사역하다가, 2년 후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자 미국 유학 길에 올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토론토대학목신학

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학에서 메릴 펠로우 연구생활을 했다. 2017년 12월 16일에는 미국 남가주 아주사에 위치한 아주사피서픽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뉴욕 롱아일랜드 교회를 거쳐 7년부터 토론토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로 14년간 사역한 후 88년초나성영락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한 박 목사는 지난 16년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서 사회적으로도 한흥기독교연맹 공동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 미주대표, 4·29 장학재단 이사장, 풀러신학교 이사 등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 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의 대표를 맡아 공헌해 왔다.

박 목사는 국방장관상, 아세아인상(Cal-State), 추암목회대상(숭실대학교), 대한민국 국민 훈장 목련장을 받은 바 있다. 저서로 『예수의 침묵』, 『이전보다 큰 영광』, 『21세기 영적 리더십』 등 35권 정도가

있으며 역서로 『유머 있는 설교』가 있다.

금년 봄 KCMUSA에서 출간한 “미주한인교회사”는 박희민 목사가 발행인으로서 남긴 마지막 유작으로, 박 목사는 발행인인 사말에서 “현재와 과거의 역사적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과거 역사를 재해석하고 조명해 봄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며, “이점에서 120주년을 맞아 미주한인교회사를 출간한 것은 미주 한인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200주년을 향한 미주 한인 이민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유족으로는 박영자 사모와 아들 피터 박, 머느리 헬렌 박, 딸 조이와 사위 거스, 그리고 5명의 손자 손녀, 알렉시아, 네이트, 호프, 살리스, 비비가 있다.

김동욱 기자

## 월드쉐어 USA 튀르키예 긴급 구호 본격 돌입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 사역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월드쉐어USA는 지진 직후에 현장을 섬기던 선교사에게 1차 송금을 하고 상황을 살피다, 많은 기관이 튀르키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월드쉐어USA는 비교적 관심이 사그라든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이 쏠리는 튀르키예 보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이 더 요긴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전쟁 1년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하던 월드쉐어 USA가 튀르키예 지원에 나선 데에는 튀르키예를 위한 모 기업의 특별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원금을 꼭 필요한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지진 구호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현장의 선교적 시급함을 깨

닫게 됐다. 강태광 목사는 평소 교제하던 선교사를 포함해 건전한 활동으로 정평이 난 여러 기관이 추천하는 C 선교사, K 선교사, 그리고 S 선교사 등과 밤을 새워가며 소통했다. 그들이 전하는 튀르키예 현장은 도움이 그 어느 국가보다 절박했다.

또한 튀르키예 주민들을 위한 구호 단체의 지원과 국가적 노력이 시들해진 지금이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파악했다. 기업의 후원금과 후원교회들의 선교헌금으로 3차 송금을 마감한 월드쉐어 USA는 다양한 채널로 현장과 연결하면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

월드쉐어USA는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이 힘을 합쳐 작은집(Tiny House) 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지 성도들과 함께 이재민촌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나누고 있다. 선교적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강태광 목사는 “대지진이 휩쓸고 간 튀르키예에서 사람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생존하기 위해 텐트를 치며 몸부림치던 그들을 또 홍수가 다시 덮치는 등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목사는 “1961년에 시작된 튀르키예 선교는 60여 년간 담보상태였고, 제약도 많았다. 현재 터키에는 180여 개 교회에 기독교 인 수가 고작 8천 명이지만, 이번 지진 후 세계 교회들의 지원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구조, 지원 활동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태광 목사는 이런 구호활동 지원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사나 현지 교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선교에 유익하다고 전한다. 튀르키예 선교와 후원에 관한 문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

의는 월드쉐어USA(323-578-7933)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극단 이즈키엘 새 단편영화 <마론 인형>, 29일 시사회



©단편영화 <마론 인형> 스틸 컷

로스 앤젤레스 필름 어워드, 인디엑스 필름 페스티벌을 포함한 15개의 영화제들에 공식 노미네이트 되고, 그 중 ‘최우수 단편상’, ‘신인 감독상’, ‘여우 주연상’, ‘최우수 아역상’, ‘오리지널 스토리’, ‘극본상’ 등 총 12개의 상을 수상한 단편 영화 <마론 인형>이 시사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2019년 팬데믹 시작 직전에 촬영해 많은 여정을 탄생한 <마론 인형>은 알츠하이머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방문자로 인해 과거의 깊은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총 37명의 후원자들로부터 8,880불을 기부받아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이름은 영화 엔딩 크레딧에 보여질 예정이다.


초연은 4월 29일(토) 오후 2시 30분, 헐리우드에서 위치한 허드슨 극장에서 5시 30분까지 3회 상영되며, 각 상영 후 Q&A를 진행한다. 이후 아마존 프라임과 유튜브 등으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개봉된다. 시사회 때는 한글 자막이 들어가며, 간단한 에피타이저와 와인도 제공된다고 한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극단 이즈키엘은 이


날, 지난 3년간 야심차게 제작해 6 새 프린지 페스티벌에 출품하게 될 작품 <카텐자>를 처음 소개한다고도 알렸다. 연극 <카텐자>는 인간의 죄, 그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루는 공상과학 스릴러물로 지난 3월 1,090명 가운데 경쟁을 뚫고 선발된 6명의 배우들의 열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편영화 <마론 인형> 티켓은 무료로, 극단 사이트 Exekiel.la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 ezekieldrama@gmail.com

김민선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기총에 단체 복귀 및 가입 문의 계속 오고 있어”

## 한기총 임시총회 20일 열려... 2개 단체 가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제34-1차 임시총회가 20일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대표 김학필 목사), 엘에스지킴이연합회(대표 박승주 목사)의 신규 회원 가입의 건은 총대들의 동의·재정으로 통과됐다. 단 총대들은 가입을 결의하기로 한 이날까지 가입비를 내지 않은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에 대해, 가입비를 미납할 경우 한기총 가입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대들은 ‘교단·단체 해벌의 건’을 다루면서 징계를 받은 교단·단체가 한기총에 복귀를 요청하면,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의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기총에 단체 복귀 및 가입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며 “한기총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대사회적으로 한기총의 이름

은 대단히 알려졌으며 희망이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물량주의 세속화를 경계해야겠다. 세상은 건물, 사람 숫자, 현금 액수 등이 크면 교회를 크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평가 시선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며 “힘을 합쳐 한기총을 바로 세워나가자”고 했다.

한기총 증경총회장 이용규 목사는 “한기총이 공산화 반대를 위한 대대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자”며 “저는 과거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으로 북한에서 조용기심장병원 착공 기념식에 초청돼 축사를 전하려고 했는데, 당시 북한 당국자는 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북한 공산주의”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존재했던 3,200여 개 교회를 없앴고 봉수교회·칠골교회를 전시용으로 세워놓았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자 한기총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자”며 “회원 교단 전체는 또한 공산주의·차별금지법·동성애 반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1부 예배에서 한기총 증경총회장 엄



한기총 임시총회에 참여한 총대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기호 목사는 ‘한기총의 사명’(스가라 4장 6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한기총은 영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충만 운동을 벌여야 한다. 신본주의를 견지하고 화합을 명목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해선 안 된다. 한기총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죄악에 대해 깨끗이 하고 정결해야 하며, 악하고 거저되며 화인 맞은 양심을 청산해 하나님 앞에서 성별 된

생활을 해야 한다”며 “기도, 찬양, 말씀에 전념하여 독초를 뽑아내자. 아울러 부정, 비판, 반말 등을 하지 말고 정결한 언어를 사용하고 겸손하도록 하자”고 했다.

김정환 사무총장은 법인설립허가증에서 법인이사장을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서 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로 교체했다며 “새로운 법인설립허가증이 필요한 단체는 신청하길 바란다”고 광고했다.

노형구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 씨의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 씨의 구속 기간은 4월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새로운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대전지법이 추가 기소한 정명석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또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다.

당초 정명석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추행 또는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씨(30)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명석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JMS 교주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 씨의 이 같은 행각은 최근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를 통해 방영돼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JMS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공범 역할로 지목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JMS 관계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까지 정조은 외 1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조은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후계자 혹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본명 김지선)

정명석의 성폭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위사간간)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조은 등을 공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위사간간 혐의를 적용했다.

정조은, 즉 김지선은 정명석의 후계자 내지 실제로 알려진 인물로, JMS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했다.

이대용 기자

## 서울신대, 황덕형 현 총장 등 차기 총장 후보 5명 확정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서울신대)는 제20대 총장 후보로 현 총장 황덕형 교수를 비롯해 오성현 교수(신학전문대학원), 유재덕 교수(기독교교육과), 윤철원 교수(신학전문대학원), 이길용 교수(신학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후보 지원 자격은 서울신대 전임교수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다. 이번 총장 후보 모두는 서울신대 소속 전임교수들이다. 총장 선거는 다음달 9일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공직선거를 위한 합의문에 서약한 후보 5명은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총장 선거 당선자가 올해 기성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총장 선출 절차는 완료된다. 총장의 임기는 4년.

올해 개교 112주년을 맞이한 서울신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신학대학 중 유일하게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형구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원서접수 일정

원서 접수 마감: 7월 마지막 주  
수입시작: 8월 중

## 입학특전

-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 유학생 I-20 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유자 (FSA)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수여
- 미국 우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 입학문의

입학처 (백옥경 과장) : 714)525-0088  
MORE INFORMATION : www.gm.edu



## 교육인가기관



#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 202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신학 (BATH)  
기독교상담학 (BACC)



목회학 (MDiv.)  
기독교 교육학 (MACE)  
선교학 (MAICS)  
기독교 상담학 (MACC)



선교학 (DMiss)  
교차문화학철학 (PhD ICS)  
교육학철학 (PhD ES)



# “유기성 목사님, 후임자에 절대 부담 주지 않으려...”

## [인터뷰] 선한목자교회 담임 취임한 김다위 목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예수동행 운동’ 등으로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65세로 조기 은퇴했다. 유 목사는 교인들 간 분쟁을 겪던 교회에 2003년 부임해 빠르게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5백여 명이던 교회를 20년 간 1만여 명으로 성장시켰고, 다수 형제교회들의 분립개척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친 유기성 목사와 지난 1년 반 가까이 함께 목회하며 배턴을 이어받은 이는 ‘빠른 80년생’ 김다위 목사다. 선한목자교회는 무려 7년간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김 목사를 선정했다. 선한목자교회 부교역자였던 김 목사는 감신대와 대학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떠나 세인트폴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2021년 5월 듀크대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학 시절인 2011년 7월 미국 UMC 부활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캔자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로 옮겨 사역했다. 이 교회는 많은 어려움으로 20명도 채 모이지 않았으나, 부임 후 김 목사는 갈등을 수습하고 8년 후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유기성 목사와 닮은꼴 여정인 셈.

지난 16일 취임예배에서 김다위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회,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취임 직전인 지난 12일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실에서 진행된 김다위 목사와의 인터뷰.

### -취임을 앞두신 소감과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요.

“일단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습니다. (후임자로서) 선한목자교회에 온 지 1년 반 정도 지났지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목회가 그렇지만, 더욱 그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향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교회가 해오던 좋은 사역과 영향력들이 있기에, 잘 이어가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 몇 년간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어려움 없이 리더십을 승계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이후 잘 안정되면 새로운 사역들을 해나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 주님께 너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

손한 마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 -전에 사역하셨던 이민교회가 겪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러티브 설교를 대중화시킨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 교수님께 배우고 싶어 미국 세인트폴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근방 UMC 교회 중 가장 사역을 잘하는 ‘부활의교회’에서 배우고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두 분이 나가시면서 어려워진 캔자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청빙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목회하러 온 게 아니고 유학 후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고사했는데, 그때 가정사가 있었어요. 뱃속 막내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 기도하던 차에, 이것도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다, 부임하게 됐습니다.

갔는데 성도 열두 분이 세 파로 나뉘어 싸우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살릴 순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살리시리라는 믿음으로,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학에서 ‘엿듣기’(Overhearing)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같은 경우죠. 직접적으로 ‘회개하세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 내 이야기인데?’ 하고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미워했구나.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치유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의 신뢰도가 워낙 바닥이었기에, 강단 메시지와 삶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는 다 알아요. 목회자의 삶을 다 알게 됩니다. 제게도 도전이었습니다. 강단에서는 목사인데, 내려와서 목사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 자신도 깨쳐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비교적 큰 교회에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민교회 가면 모든 걸 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가운을 벗고 성도들과 함께했습니다. 공항 라이드도 함께 하고, 어디든 함께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누가 이사를 가면 같이 집 나르고, 졸업식 같은 성도님들 가정사도 같이 축



김다위 목사는 지난 16일 취임 감사예배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흠이 많고 연약하다”며 “그러나 주의 은혜로 감사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하해 줬습니다.

‘나 목사인데’가 아니라, ‘당신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니, 오히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더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그 마음으로 목회하려 합니다.”

### -박사 학위는 듀크대에서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윌리엄 윌리몬 교수 밑에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Resident Aliens)>을 함께 쓴 유명한 학자들로 알고 있는데, 관련 주제로 논문도 쓰셨죠.

“듀크로 간 것은 두 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우어워스 교수님은 은퇴하셨고, 윌리몬 교수님도 감독직을 하셔서 수업을 맡지 않으셨지요. 알고 갔지만, 놀라게도 2018년 가을 입학했을 때 윌리몬 교수님이 복귀하셔서 제 목회학 박사 디렉터이자 어드바이저가 돼 주셨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하우어워스 교수님도 은퇴를 하셨지만, 박사 과정 리더십 수업을 하셨어요. 큰 기대 없이 갔는데 두 분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도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은퇴 후라 지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몬 교수님께 섭외를 부탁드렸더니, 하우어워스 교수와 친하다면서 바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우어워스 교수님은 외국인(Aliens)임을 감안해 특별히 지도를 해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 -청빙 후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셨는데, 정말 소중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배우게 되셨나요.

“1년 반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설교와 목회부터 리더십, 회의, 장로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행정적인 면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은 후임자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임자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목사님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참고하세요’ 하는 관점으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처음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목사님과 설교 원고 진행 상황을 주고받았습니다. 보내 주신 설교 원고에서 교회 차원에서의 방향성은 맞춰가고, 포인트가 전혀 달라도 서로 존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같은 본문을 다르게 보면서도, 크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했습니다.

4개월 정도를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굳이 설교 원고를 공유하진 않았습다. 유 목사님과 제가 설교 준비하는 패턴이 좀 달랐거든요. 목사님은 월요일에 이미 원고의 약 50%를 쓰시고 하루씩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요리할 때 재료를 모두 모으고, 금·토요일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설교 원고를 나누는 과정이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 -설교에 대해 강조하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거의 없었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예수동행일기 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결국 많이 전할 수 없으니 하나만 제대로 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님들과의 모임 때도 ‘원 포인트’, 하나를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십니다.

저도 원 포인트를 전하면서 기승전결이 있는 내러티브 스타일이고, 유 목사님은 원 포인트가 초반부터 나오고 예화 등으로 나머지를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동일한 ‘원 포인트’이기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대용 기자

#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1. 주 최 : 미주 가정선교회

2. 일 시 : 2023년 5월 6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 장 소 : 생수의강 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4. 참가비 \$50.00(성인부부) 점심식사 제공  
\$30.00(목회자부부,싱글)

5. 강 사 : 이재근 목사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Ph.D)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쿰란) 저자

6. 강의내용: 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 해결방안

7. 기타 안내

(1)참가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이나, 전화(562-714-0691)로 하시면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신청서나 수표를 보낼 경우 Pay To 를 LLMC로 명기하시고, Rev. Jae Kun Lee (11908 Centralia Rd. #102, Hawaiian Gardens, CA 9071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신문, 기독일보 목회자아버지학교, 주사랑선교회, 생수의강 선교교회



### 앤디 스탠리 목사 “다시 볼 때까지, 아버지 매일 그리워할 것”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앤디 스탠리 목사. ©앤디 스탠리 공식 페이스북

미국 남침례회 전 총회장이자 텔레비전 전도사였던 찰스 스탠리 목사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지난 18일 별세한 가운데, 아들인 앤디 스탠리 목사가 “다시 볼 때까지 아버지를 매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지아주 알파레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스탠리 목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 만인 이날,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짝은 사진을 트위터에 남겼다.

스탠리 목사는 “아버지와 함께한 이 마지막 몇 주간은 말할 수 없이 소중했다. 매번 만남이 끝날 때마다 아버지는 제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며 “저는 아버지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앉아계셨던 큰 가죽 의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지난 토요일 밤 아버지의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해도 되느냐고 물으셨다. 마치 알고 계신 것처럼”이라며 “그러고는 ‘앤디,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스탠리 목사는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놀라운 정도로 중요한 말”이라고 말한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다. 그는 “나는 그를 다시 볼 때까지 매일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다.

CP에 따르면 한때 스탠리 목사 부자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화해하게 되었고, CNN은 지난 2012년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개선했는지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었다고.

한편, 찰스 스탠리 목사는 91세 생일을 몇 달 앞둔 18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설립한 ‘In Touch Ministries’가 그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찰스 스탠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헌신하면서 충실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제 그는 구주를 직접 대면하여 영혼의 기쁨을 얻고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In Touch Ministries를 이끄는 것 외에도 찰스 스탠리 목사는 1980년대에 1년 임기의 남침례회 총회장을 두 번 역임했다. 그는 또 1971년부터 2020년까지 애틀랜타 제임즈레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많은 책들을 펴냈다.

찰스 스탠리 목사가 세상을 떠나자 캘리포니아의 대형교회인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를 포함한 현지 교계 지도자들이 조의를 표했다고 CP는 전하기도 했다.

로리 목사는 “그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그의 족적을 남겼다.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라디오와 TV에서 그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축복을 받았으며, 그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받는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 목사의 장례식에서 스탠리 목사를 직접 만난 것은 특권이었다. 그는 따뜻하고 은혜로웠다”며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이미 예수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길 바란다. 찰스 스탠리 목사가 많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美 남침례신학교 총장 “질병 통해 더 깊이 겸손 · 감사”

### 최근 폐 혈전으로 입원했다 퇴원

미국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총장이자 ‘더 브리핑’(*The Briefing*) 팟캐스트 진행자인 알버트 몰러 주니어(Albert Mohler Jr.) 박사가 양쪽 폐에 생긴 혈전으로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다.

몰러 박사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몰러 박사는 “저는 5월 졸업식에 필요한 이사회 회의와 예정된 교수진 회의에 제한적으로 참석했다”며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정규 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입원을 통해 깊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고 했다.

또 “저는 ‘뱃티스트 헬스 루이스빌’(Baptist Health Louisville)의 우수한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뚜렷했고, 의학적 전문성은 위안이 되고 검증됐다”고 했다.

몰러 박사는 또 그가 치료를 받는 동안 ‘서던 세미너리’(Southern Seminary)와 ‘보이스 칼리지’(Boyce College) 측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전설적인’ 아내 메리(Mary)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한다고 했다.

지난 주말 남침례신학교는 성명을 통해 몰러 박사가 양쪽 폐에 혈전이 생기는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고 발표했다. 또 그가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몰러 박사는 1993년 33세에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후 SBTTS의 제9대 회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정치, 성 혁명, 신학 및 기타 뜨거운 이슈에 대한 솔직한 견해로 많은 주



팟캐스트 ‘더브리핑’ 진행을 맡은 알버트 몰러 박사. ©유튜브 영상 캡처

목을 받았다.

앞서 몰러 박사는 47세였던 2007년 1월에도 폐에 혈전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진단 후 잘 회복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프랭클린 그래함 “부모의 미성년 자녀 성전환 지지는 광기”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 복음주의협회(BGEA)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지지하는 부모를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의 주장을 옹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17일 그래함 목사는 SNS에 성인들이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부끄럽고”, “사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머스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MSNBC 기사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 글을 남겼다. 이 기사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겨냥하여 “그의 권력을 향한 간절함이 주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그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머스크는 “성인이

### ‘청소년 성전환 수술 반대’ 머스크 트윗에 “용기 내줘서 감사”

되기 전, 자녀를 (성전환) 불임 수술을 시키는 부모나 의사는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트윗을 남겼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및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의 대표인 그래함은 머스크의 발언이 “미성년자에게 행해지는 기괴하고 위험한 트랜스젠더 치료를 지적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며 “그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어른이라도 이러한 (성별) 혼란을 조장하고, 아이들을 지옥 구덩이 위에 세워진 절벽으로 밀어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일부 부모, 정치인 및 소위 전문가들은 의료라고 잘못 불리는 악의 가면극에 대해 유죄”라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와 청년들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손상시키는 약물의 영향으로 평생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심판하실 것”이라며 “이 광기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적, 외과적 생식기 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의 15개 주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변형 절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주에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

시시피,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및 웨스트버지니아가 속해 있다.

텍사스주는 입법적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켄 팩스턴 텍사스 공화당 법무장관과, 제이미 마스터스 가족보호서비스(DFPS) 국장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분류했다.

미국소아과학회(ACP)는 사춘기 차단제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및 이성 호르몬과 결합 시 불임” 등을 꼽는다. 또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에게 처방되는 이성 호르몬이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평생 동안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성 증가”를 들었다.

이 절차에는 남아의 거세와 여아의 생식기 절단, 여아의 팔뚝이나 허벅지에서 피부와 조직을 제거해 가짜 음경을 만드는 수술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소녀들은 이중 유방 절제술이나 자궁 절제술로 인해 평생 동안 흉터가 남는다.

이달 초,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과반수(53%)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지지했으며, 그중 39%는 “강력히 찬성”했다.

강혜진 기자

## 릭 워렌 “2년간 자가면역질환 투병... 지속적인 고통 느껴”

미국 새들백교회 설립자인 릭 워렌 목사가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릭 워렌 목사는 ‘스테쳐 교회 지도자 팟캐스트’(The Stetzer Church Leaders Podcast)에 출연해 지난 2년반 동안 투병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쇠약해지고 고통이 지속적이었다”라며 “이동성 문제를 일으켰고 때때로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릭 워렌 목사는 (질병으로 인한) 좌절감을 공유하면서 “때때로 손이 너무 팽조여서 설탕 봉지를 열 수 없거나 후추 통을 돌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24시간 거의 모든 근육을 고통에 빠뜨린다”라며 “쇠약해진다. 걷기도 힘들고 일도 하기 힘들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유튜브

그는 “문제는 때때로 두뇌가 불타오르는 것 처럼 느껴지고 휠체어에 탄 것과 같다는 것이다. 나는 휠체어에 타고 있지 않지만 결론은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

이라고 했다.

릭 워렌 목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새들백교회에서 은퇴했다. 그는 선교에 초점을 맞춘 ‘FTT’(Finishing the Task) 연합을 이끌고 ‘Created to Dream’이라는 새 책을 저술했다.

그는 “질병이 그의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며 “내가 처음 FTT 연합(Finishing the Task Coalition)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살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경험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아파도 나를 믿어줄 줄 알았기에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p>"모든 애매시 앞부분이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amp;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p> <p><b>박은성</b> 담임목사</p> <p>Acts Global Church</p> <p>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p>	<p>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p> <p><b>이미애</b> 담임목사</p> <p>Angel's Church</p> <p>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p>	<p>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p> <p><b>한주봉</b> 담임목사</p> <p>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p> <p>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p>	<p>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p> <p><b>이현욱</b> 담임목사</p> <p>His Presbyterian Church</p> <p>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p> <p><b>송재봉</b> 담임목사</p> <p>LA사랑의 동산교회</p> <p>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박자상</b> 담임목사</p> <p>LA하나교회</p> <p>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JOE HONG</b> 담임목사</p> <p>Metanoia Church of Southbay</p> <p>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p>	<p>주일예배 오전 10:30</p> <p><b>ISAIAH LEE</b> 담임목사</p> <p>New Start Community Church</p> <p>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p>
<p>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p> <p><b>장경호</b> 담임목사</p> <p>Only One Church</p> <p>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p>	<p>주일예배 오후 2:00</p> <p><b>제임스김</b> 담임목사</p> <p>The Well Church</p> <p>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p>	<p>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남상권</b> 담임목사</p> <p>남가주 어노인팅교회</p> <p>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p> <p>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b>김상현</b> 담임목사</p> <p>In Christ Christian Church</p> <p>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안상희</b> 담임목사</p> <p>남가주늘사랑교회</p> <p>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p>	<p>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p> <p><b>오상규</b> 담임목사</p> <p>남가주예수사랑교회</p> <p>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p> <p><b>김창곤</b> 담임목사</p> <p>남가주은혜선교회</p> <p>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차권희</b> 담임목사</p> <p>놀웁장로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p>
<p>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p> <p><b>강은덕</b> 담임목사</p> <p>늘새론교회</p> <p>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kdk@hanmail.net</p>	<p>주일예배 오후 12:30        아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b>김영일</b> 담임목사</p> <p>더섬기는교회</p> <p>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p>	<p>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p> <p><b>정용암</b> 담임목사</p> <p>랜초한인교회</p> <p>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p>	<p>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p> <p><b>신용석</b> 담임목사</p> <p>로고스라이프교회</p> <p>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정달성</b> 담임목사</p> <p>리뉴얼새힘교회</p> <p>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p> <p><b>김명구</b> 담임목사</p> <p>말씀위의교회</p> <p>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라크레센타 주일예배 9:00(목,금), 오전 6:00(토)        주일예배 9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p> <p><b>서민수</b> 담임목사</p> <p>방주교회</p> <p>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p>	<p>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p> <p><b>장현석</b> 담임목사</p> <p>버몬한인교회</p> <p>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p>
<p>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p> <p><b>지동근</b> 담임목사</p> <p>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p> <p>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p> <p><b>윤혁</b> 담임목사</p> <p>브림장로교회</p> <p>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p> <p><b>신현우</b> 담임목사</p> <p>생명과사랑의교회</p> <p>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p>	<p>주일예배 오전 11:30</p> <p><b>곽태규</b> 담임목사</p> <p>생명의길교회</p> <p>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p> <p><b>장동훈</b> 담임목사</p> <p>선민교회</p> <p>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p>	<p>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p> <p><b>임상훈</b> 담임목사</p> <p>섬김의교회</p> <p>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p> <p><b>이석기</b> 담임목사</p> <p>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p> <p>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p> <p><b>김요한</b> 담임목사</p> <p>성암교회</p> <p>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p>
<p>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p> <p><b>정찬근</b> 담임목사</p> <p>예심교회</p> <p>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p>	<p>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amp;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회 수요일 새벽 5시 30분</p> <p><b>김지연</b> 담임목사</p> <p>원웨이침례교회</p> <p>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p>	<p>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b>최주철</b> 담임목사</p> <p>은혜가샘솟는교회</p> <p>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p>	<p>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amp; Youth 오전 11:45</p> <p><b>표희근</b> 담임목사</p> <p>은혜샘교회</p> <p>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p> <p><b>류연주</b> 담임목사</p> <p>주님의숲교회</p> <p>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p>	<p>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b>김성규</b> 담임목사</p> <p>주백성교회</p> <p>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p>	<p>주일예배 오후 12:0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p> <p><b>양수용</b> 담임목사</p> <p>초대교회</p> <p>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p>	<p>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p> <p><b>권태래</b> 담임목사</p> <p>카마리오열방교회</p> <p>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p>
<p>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조인</b> 담임목사</p> <p>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p> <p>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p>	<p>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p> <p><b>류광환</b> 담임목사</p> <p>커넥션교회</p> <p>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p>	<p>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p> <p><b>김용근</b> 담임목사</p> <p>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p> <p>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p>	<p>주일예배 오후 1:00</p> <p><b>정하이</b> 담임목사</p> <p>크로스교회</p> <p>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p>
<p>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침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체드(오침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회위임 2번매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매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p> <p><b>오홍성</b> 담임목사</p> <p>하늘기쁨의교회</p> <p>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p>	<p>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예배 오전 6:00</p> <p><b>양국민</b> 담임목사</p> <p>함께하는 주은혜교회</p> <p>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김요한</b> 담임목사</p> <p>Global United Church</p> <p>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p>	<p>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 1:27)</p>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침 손결하고 스니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오)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한영성예배  
대학원대학(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찬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강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대.청) 오후 7:00(금)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강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대.청) 오후 7:00(금)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김지성** 담임목사

**안정섭**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3부 11:00AM

**김경진**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 美 아칸소 주지사, '종교적 신념 차별 금지' 법안 서명

### “종교자유회복법에 기록된 기존의 보호 강화”

사라 허커비 샌더스 미 아칸소 주지사가 종교단체의 신념과 정체성을 차별적인 행위에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샌더스 주지사는 지난 19일 주 정부가 종교적 정체성이나 지위를 이유로 종교단체에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양심보호법’(Conscience Protection Act), 하원 법안 1615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신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는 종교단체 또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나 아칸소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교적 행위에 관여하는 종교단체에 반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이 법안을 공화당이 장악한 아칸소주 하원은 78대 17로 승인했고, 상원 역시 28대 4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제공된 ‘차별적 조치’의 예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과세 처리를 변경하거나 세금, 벌금 또는 지불이 부과되거나 거부, 지연, 취소 또는 기타 신념에 따라 어떤 사람 또는 종교 조직에 대한 세금 면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법안은 주 정부에 “계약, 허가 또는 합의로 간주되는 계약, 허가 또는 합의와 관련해 어떤 사람이든 고려하되, 그 사람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거나 진실된 종교적 신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근거로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조직이나 개인을 차별하는 효과가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강력한 정부 측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주 정부가 자신을 차별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구제책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해 주 정부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는 이들은 2년



사라 허커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마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영상 캡처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에서 여러 건의 종교 자유 소송을 승리한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이 새로운 법을 환영했다.

ADF의 그렉 차푸엔(Greg Chafuen) 법률고문은 18일 성명에서 “양심보호법은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기록된 기존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가 종교인과 조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아칸소의 종교 자유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모든 의견의 불일치에서 누가 승소할 지 결정하지는 않지만, 모든 아칸소 주민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 권력과 상관없이 정부의 조치로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 공정한 청문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차푸엔은 “모든 아칸소 주민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주의회와 샌더스 주지사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반면 ‘성소수자 옹호단체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은 성명을 내고 “이는 샌더스 주지사의 두 가지 나쁜 법안 중 하나”라면서 “종교적 신념이 성소수자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구실로 사용되도록 허용한다”고 반발했다.

강혜진 기자

## ‘챗GPT 비판’ 일론 머스크 “거짓말하도록 훈련돼…진실된 AI 만들 것”



터커 칼슨 투나잇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 ©유튜브 영상 캡처

구였고, 나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그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 난 밤늦게 그와 AI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그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구글의 목표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불리는 인공 범용 지능, 인공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이다. 그것은 좋은 잠재력뿐 아니라 나쁜 잠재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초지능 AI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글을 잘 쓸 수 있고 잠재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AI는 잘못된 항공기 설계나 나쁜 자동차 생산보다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당시 구글은 이미 딥마인드(DeepMind)를 5억 달러에 인수한 상태로, 전 세계 AI 인재의 약 4분의 3을 보유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은 챗GPT의 성공에 이어 올해 언젠가는 챗봇이 포함된 검색 엔진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인공 초지능이 좋을 수 있지만 나쁜 가능성도 있다는 래리 페이지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래서 급진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좋은 일을 확률을 최대화하고 나쁜 일을 할 확률을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려 한다. ‘트루스(Truth)GPT’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최대의 진실 추구 AI’(maximum truth-seeking AI)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안전하게 가는 최선의 길이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관심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 등과 함께 이 회사를 창립했다가, 2018년 테슬라의 AI 연구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로 오픈AI 이사회를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그는 “래리 페이지는 나와 가까운 친



# 극단 무슬림, 나이지리아서 기독교인 33명 살해

### 한 주 동안 3회 공격 발생... 현지 주민, '대학살'로 묘사

풀라니 목자들과 또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서 기독교인 33명을 살해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들은 장온 카타프 카운티(Zangon Kataf County)의 기독교 문지 마을을 공격했다. 이 사건 후 카두나주 성공회 교구의 제이콥 과시 목사가 33명의 기독교인 장례를 주례했다.

과시 목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33명의 기독교인들이 풀라니 목자들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된 검은 일요일이다. 그들은 4월 17일 월요일 묻혔다"고 했다.

그는 "지난 7년 반 동안 남부 카두나주에서 그들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이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악을 퍼뜨린 것을 목격했다"며 "카두나주 정부든 나이지리아 정부든 (마음만 먹으면) 이 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이 악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남부 카두나주 기독교 지도자이자 전 ECWA(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사무총장인 바우타 모티 목사는 성명에서 "문지 마을에 대한 공격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모티 목사는 "문지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많은 집이 불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40채의 집이 파괴됐다. 4일 전에는 같은 마을에서 2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다. 아타크 은제이 마을에서도 17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고 했다.

현지 주민인 그레이스 바마이(Grace Bamaiyi)는 "마을 집의 거의 절반이 불에 탔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인 존 칸티요크(John Kantiyok)는 이번 공격을 '대학살'로 묘사했다.

칸티요크는 모닝스타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주일 밤 심각한 공격을 받은 장온 카타프 지방의 문지 마을을 위해 기도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할 우려가 있고, 마을에 있는 집의 거의 절반이 불타고 파괴됐다. 이는 학살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프랜시스 사니(Francis Sani)는 성명을 내고 "33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음을 확인했다. 공격자들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를 불구로



나이지리아 남부 카두나주. ©위키피디아

만들고 불태웠고, 집에 불을 지르고, 지역사회 내 여러 집을 급습해 33명의 끔찍한 살인 여파를 남겼다. 그 중 4명은 다양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중상을 입고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이 파괴됐다. 우리는 대학살과 무분별한 유혈 사태의 수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오픈도어가 2023년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WWL)에 따르면, 2022년 나이지리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수는 5,014명이며 이는 세계 1위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4,726명으로 전년도 2,500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성폭행 또는 괴롭힘, 강제 결혼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견수와, 신앙 때문에 가정과 사업체가 공격받는 건수도 높았다.

교회 공격과 내부 실항민 발생 건수는 전년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국가 목록에서 나이지리아는 전년도 7위에서 역대 최고인 6위로 뛰어올랐다.

WWL 보고서는 "풀라니, 보코하람, ISWAP(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 등의 무장세력이 몸값을 받거나 성노예를 삼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습격해 살해, 강간, 납치 등을 자행했다. 올해는 이 폭력이 남부의 기독교인 다수에게까지 퍼졌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계속해서 이것이 종교적 박해를 부인하고 있기에, 기독교인의 권리 침해는 처벌받지 않은 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국제 자유 및 신앙에 관한 조당 의원그룹(APPG)의 보고서는 "무슬림 풀라니족은 보코하람과 ISWAP(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역)에 필적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기독교인과 기독교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 우간다 교회서 예배 중 '폭탄 테러'... 사상자 없이 용의자 체포



우간다 중부 지역의 무코노(Mukono)지구에 있는 한 마을. ©Antoine Plüss/ Unsplash.com

지난 7일 우간다 서부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한 교회의 성금요일 저녁 예배 도중 연료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현지 소식통이 보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모닝스타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캄웬지구 비굴리에 있는 나비 오순절 교회(NABI Pentecostal Church)에서 발생한 폭발로 건물 일부와 주차된 차량 및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 6명 중 한 명인 카세세 지역 주민인 브람발레 사다디(28)는 사건 직후, 교회 경비원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됐다.

김유진 기자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라마단 성월에 알라를 섬기는 일환으로 잔나(Jannah, 이슬람교의 사후세계)를 위하여 지하드 활동을 수행했으며, 낙원에서 그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모닝스타뉴스는 이번 테러로 "지역 기독교인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교인들이 철야 기도회를 하는 동안 휘발유 폭발과 함께 교회 정면의 일부를 덮치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교회 경비원과 교인들이 용의자들의 차랑인 빨간색 바하즈 복서 오토바이를 가로챘다"면서 "용의자들은 교회 경비원과 다른 교인들에 의해 맹렬히 추격당했지만, 다른 5명의 테러리스트들은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5명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소식통이 보도한 우간다의 기독교인 박해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다.

우간다의 헌법과 기타 법률은 시민들이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권리가 포함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무슬림은 우간다 인구의 12% 이하를 차지하며, 주로 우간다의 동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OC예배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OC예배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OC예배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목부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라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s.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만찬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새벽찬양회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매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 복음주의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목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찬양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한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관람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99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를 하자”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며칠 전 필자는 장기 선교를 준비하는 30대의 젊은 부부와 교제하였다. 그들은 대학 시절 각각 1년 이상 학생 선교사(SM)로 이집트와 모로코를 섬기고 왔다. 그 이후로도 매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이슬람권의 여러 나라들을 단기선교로 섬기며 다녔다.

그들과 선교지 소식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대한 책을 선물 받았다. 제목은 "SEEKING ALLAH, FINDING JESUS"이다. 나빌 쿠레시라는 파키스탄 청년이 이슬람에서 그리스천이 되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그리고 있다. 복음을 접했던 순간 그리고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기록을 읽는 순간 필자가 터키 사역을 하다가 만났던 아프가니스탄 교회 개척자의 간증이 생각이 났다. 그도 이슬람의 이맘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선교팀이 건네준 성경책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고 자는 데 성경 속의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하시며 '이번 일요일에 어느 곳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었다. 그날 그 장소를 찾아갔는데 한 아파트에서 10여 명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지금은 교회 개척자가 되어 삶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었다.

이렇게 열방은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자로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열방의 나라들을 가서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곳에 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영적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동원되고 있음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 놓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세워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믿는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바른 성도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인적 구성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개발시켜야 한다. 목회자는 이런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선교사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명이 있다. 문제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세속적인 관리 기술이 들어와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는 한 민족의 종족 집단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회를 사교클럽 수준으로 정착시키려는 세속의 운영에서 탈출해야 한다. 교회는 우리의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사야 14:24 말씀을 제시하고 싶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이방의 성도들을 복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의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그 나라들 속에 있는 이방의 영혼들을 찾아 그들에게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와 더불어 구원받으라는 이방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사역을 세상의 교회들이 영적 동맹으로 다 같이 일어서야 할 것이다.

잉글랜드의 한적한 시골에 부유한 페이지(Page)집안과 포드(Ford) 집안이 있었습니다. 포드는 자녀가 없어서인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사사건건 의심을 합니다. 페이지 집안은 딸 앤(Anne)과 아들 윌리엄이 있습니다. 페이지 앤 주변에는 세 사람의 신랑감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당사자인 앤은 각각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조용한 마을 원저에 돈 떨어진 퇴물 기사 팔스타프가 허름한 여인숙에 세 들어 삽니다. 한때는 어린 헨리 왕자 덕분에 흥청망청 즐기며 살았지만, 왕자가 왕으로 즉위하자 돈줄이 끊어졌고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방 치안 판사인 셸로우 씨가 원저를 찾아와 팔스타프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러나 팔스타프도 만만치 않았습니 다. 그는 특유의 재치와 유머에 판사가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옥신각신하던 그들을 지역 유지인 페이지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각각 다릅니다. 앤은 자신의 신랑감을 살필 궁리를 하고, 팔스타프는 먹고살 기회를 엿보며 식사에 임합니다.

팔스타프는 어수룩한 시골 여자를 속여서 돈을 빼앗아야만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팔스타프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여인숙으로 돌아와 마을에서 부자라고 소문난 페이지와 포드씨의 부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두 개의 똑같은 편지를 그의 하인을 통해 전달하려 하지만 하인들이 이를 거절하자 팔스타프는 그들을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해고당한 하인들은 복수를 위해 팔스타프의 의도를 그 아내네의 남편들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두 남편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페이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질투심 많은 포드는 부들 부들 떨립니다. 그는 팔스타프의 계획을 알아낼 목적으로 마스터 브룩으로 변장을 하고 팔스타프를 감시합니다.

한편 팔스타프의 편지를 남편들을 통해서 전해 받은 두 여인은 분노합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편지를 대조해 보고 두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그의 파렴치함에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 USA

들을 어수룩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팔스타프의 속셈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질투심 많은 남편을 자극해 골탕 먹이려고 계획합니다. 두 여인은 그를 골탕 먹일 계획으로 팔스타프에게 남편들이 없을 때 만나자는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냅니다.

한편 브룩으로 변장한 포드는 포드씨 부인을 사랑하지만, 그녀가 너무 정중해서 유혹하기가 쉽지 않고 너스레를 떨며 팔스타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팔스타프에게 돈을 주며 그녀를 유혹할 것을 부탁합니다. 팔스타프는 이미 포드씨 부인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팔스타프가 포드 부인을 만나러 오자 두 아내네는 그를 더러운 빨랫감이 있는 빨래 광주리에 숨겨 강물에 쏟아 버립니다. 다시 돌아온 팔스타프는 여인들을 유혹하는 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기 팔스타프는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팔스타프는 놀림감이 되면서도 두 여인에게 치근뽀뽀합니다. 두 여인은 팔스타프를 골려줄 방법을 위해 머리를 맞깁니다. 두 부인은 하녀를 시켜서 팔스타프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내용은 '오늘 밤 자정에 사냥 옷을 입고 동물의 탈을 쓰고 숲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도망갈 것이고 그때 우리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져요'입니다. 그를 숲으로 유인하는 편지였습니다.

두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요정, 모기, 말벌들로 변장시켜 숲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자 팔스타프는 편지에서 주문한 대로 동물의 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의 함정에 팔스타프가 빠진 것입니다. 여러 동물과 요정으로 분장한 마을 사람들이 팔스타프를 괴롭힙니다.

이 와중에 요정의 왕이 등장해서 "도덕이 문란한 여인을 처벌하고 냄새를 풍기는 남성을 처벌하라!" 죄목에 따른 벌을 내리게 합니다. 여인들은 이미 도망을 갔기에 팔스타프 혼자 벌을 톡톡히 받습니다. 팔스타프가 벌을 다 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동네 사람들은 그의 친구가 됩니다.

두 아내네가 팔스타프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이지만 페이지의 딸 안나의 사랑 이야기도 흘러갑니다. 안나 페이지 주변에는 세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슬랜드는 법관 셸로우의 조카로 안나의 아버지가 짝지어준 신랑감입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의사인 카우스를 딸의 신랑으로 짝 짝여둔 상황입니다. 프랑크 악센트가 강하고 미숙한 영어로 놀림을 받으나 순수한 총각 의사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가난한 남자 펜톤을 사랑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팔스타프가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위감 마스터 슬랜드와 딸을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카우스와 딸을 결혼을 시키려 준비했습니다. 한편 앤은 자기가 좋아하는 펜톤과 원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주례 신부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슬랜드와 카우스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결국, 펜톤이 앤과 결혼하여 부모의 용서를 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원저의 즐거운 아내네들"은 영어로 쓴 중산층을 위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입니다. 중산층의 사랑, 질투,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당시 영국 사회의 갈등의 단면을 보여 줍니다. 사회적 신분이 주는 권력과 부모 형성된 권력의 갈등을 보여 줍니다. 팔스타프의 가난과 윤리적 파행은 왕과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팔스타프의 은밀한 유혹과 두 여인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반응과 갈등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흥미롭게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당시 사회 구조는 물론 인간 삶의 본질을 꿰뚫는 셰익스피어의 통찰력을 보여 줍니다. 어설픈 팔스타프의 유혹과 두 부인의 애매한 반응 그리고 앤의 결혼을 둘러싼 여러 의견은 인간이 가진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기독교위원회, 목회학박사(M.Div), 상담학박사, 선교학박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용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정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U.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신사참배 85년을 맞아

# 미주디아스포라 대속죄 연합기도는 복음통일이라는 대부흥을 볼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교로 2차례 예루살렘성전파괴

솔로몬 성전파괴 - 바빌로니아에 의해 B.C 597년 아빕월 9일에,  
헤롯 성전파괴 - 로마제국에 의해 A.D 70년 아빕월 9일 같은 날 파괴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의 발원지 장대현교회



▲1938년 9월 9일 - 평양신사참배하는 장로교총회대표들

1907년 2월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대부흥 후,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결의하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등장,

북한교회들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남과 북의 분단으로...

복음통일부흥으로 교회가 다시 복귀되고 세워지는 우선 일은 다니엘처럼 조상들의  
배교의 죄악을 후손들이라도 깨달아 속죄와 참회하는 기도라 믿습니다.

### 미주한인 교회/성도들의 신사참배대속기도일

2023년 9월 3일(주일) ~ 9일(토): 공예배시 교회형편에 맞게 한 번 드림

회개를 통해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에 디아스포라 성도와 교회들이  
참여를 원하시면,

- 1)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 신사참배(\$25/권당)
- 2) 영어권 2세들을 위한 신사참배요약본과 31개 회개기도문(한/영)
- 3) 신사참배 배경과 해결 강의동영상 링크를 제공드립니다.

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주최 : 미주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주관 : 기드온동작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찬: 기독일보

전화 : (360)305-2313, (425)775-7477 문의: dodream2006@gmail.com



강준민 칼럼

# 안식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오늘도 이른 새벽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제게 있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주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안식하는 동안에 안식의 시간이 주는 지혜와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안식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은 경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둘째, 안식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로봇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로봇이 일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봇이 일하다 힘에 겨워 폭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기름 없이 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름 없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와 비행기가 움직이려면 지속적으로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안식은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재충전하는 것처럼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안식은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멈춰 쉬어야 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는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66쪽》에서 멈추어 쉬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멈추어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계속 가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버리면, 중간에 쉬어가며 여행할 때보다 회복하

는데 네 배 정도의 시간이 든다. ... 더 많이 쉬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잘 쉬고 정기적으로 쉬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식함으로 더욱 멀리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안식은 새로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만남은 계속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낯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간 후에 낯선 만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낯선 만남을 통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꾸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동시에 낯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낯선 만남, 새로운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안식을 통해 좋은 만남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낯선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식은 새로운 눈뜸의 시간입니다. 안식하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주하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멈추어 응시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 응시하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익숙하던 것들도 낯선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멈추어 응시하게 되면 일상 속에 담긴 보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일상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가

까이에 보화를 감춰두십니다. 일상 속에 기적을 담아두십니다. 저는 안식의 시간을 통해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을 깊이 응시하며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받는 사람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은 것,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지 않고 누릴 수 없습니다. 잘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의 뚜껑이 닫혀 있다면 비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았습시다(요 1:16).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시다. 예수님이 보내 주신 성령님을 충만히 받았습시다. 받음이 있을 때 전수가 있고, 받음이 있을 때 나눔이 있습니다.

일곱째, 안식은 새로운 도약의 시간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침체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고 침체가 지속되면 하향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약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배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더욱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봉주 칼럼

# 적극적인 사람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사람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검사가 유행입니다. 성도님들의 성격 유형은 무엇입니까? 한 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는 그저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둘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인 편이고, 표현이 과감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 적극적이라

서 결과가 눈에 확 뜨입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만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은 신중합니다. 보다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반면에 실천적이기 보다 수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을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누가 무언가 잘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선전하고 자랑하기를 매우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향을 영적 오지랖이라고 부르는데, 제 소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향적인 사람 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것, 잘되는 것을 보는 일이 그렇게 좋고 행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관한 저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간증이 있으면, 나누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정보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 좋은 걸 다른 사람도 하면 좋겠다"하는 적극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할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격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일을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고자 하는, 다른 이를 위하고 싶어 하

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전교인 수양회를 올라갑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수련회 가서, 목침껏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눈물 속 땀을 때까지 제대로 한 번 기도해보자, 이번에 가서 꼭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야지, 이제는 교우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내야지"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T. 213.378.8530/213.674.7476



진유철 칼럼

### 관성과 가속의 힘이 있습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운동의 제 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언제까지나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고, 또 등산이나 낚시에 맛을 들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산과 바다를 찾는 것과 같

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시작되어 계속 하다 보면 가속의 힘이 붙어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어려운 기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척 교회가 왜 힘들습니까? 가속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이 왜 힘들습니까? 가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속이 붙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젊어서는 맘대로 살다가 임종의 순간에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 일이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냐하면 인생은 관성과 가속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래는 오늘 가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원하면 바로 오늘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성과 가속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오늘을 제대로 못하면 오늘이 안 되고, 오늘이 안 되면 또 내일이 안 됩니다. 큰 배일수록 핸들을 꺾는 각도보다 회전이 훨씬 크게 돕니다. 그래서 자동차 핸들 꺾듯이 생각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큰 배와 같이 더 많은 사명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훨씬 더 회전 반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의 힘 때문에 회전 반경이 커지므로 지금 마음먹는다고 그것이 바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그 때 한 번에 변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쪽으로 가속이 붙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내일 진짜 잘되기를 원하면 도움닫기로 뛰

는 힘처럼 오늘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죄의 가속이 붙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은혜의 가속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1절 이하에는 말세에 고통 하는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죄의 가속이 붙어 더 악하여져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지금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은혜의 가속이 붙어 내일도 계속 예배에 나오기가 쉽고,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면 결국 그날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내 삶에 은혜의 가속이 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가속이 붙고 있습니까?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 평양신학교와 조선신학교의 설립(2)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평양신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채필근 목사가 “아등(我等) 부지불식간에 마·영인의 사상관념 내지 예의습관에 감염되어서 차등(此等) 아직 잔존해 있는 바,…… 우리들은 깊이 반성하여 국가에 대해서 범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싶다.” 고 말한 것을 우리는 그의 본심으로 한 말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비록 본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교장 밑에서 수학한 교역자가 참 하나님의 사역자로 훈육되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사참배에 처음부터 저항 없이 수행했던 감리교신학교도 그렇게 평탄하게 학교가 유지되지 못했다. 1940년 6월에 교내에 붙은 격문이 발각된 것을 빌미로 무기 휴교를 당했다. 이듬해 일제는 다시 개교를 허락하였으나 교문에 ‘결전태세’(決戰態勢), ‘종교보국’(

宗教報國)이라는 글을 써 붙여야만 하였다. 1944년 교명이 ‘황도정신교사연성소’로 바뀌었을 때는 이곳이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신학교인지, 일제에 충성을 바치는 역군을 양성하는 곳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좌표를 잃고 허덕이던 비운의 세월이었다. 한편 일제는 교회 박멸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기독교 내의 모든 지도자들을 1945년 8월 17일에 한꺼번에 참살하여 버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찰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약 1만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전세가 불리해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게 되면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일어나 반일 항쟁을 주도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고, 패전 후 이들이 지도자들이 되어 일인들에게 보복을 주도할까 두려워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야만적 계획이 실현되지 불과 이틀 전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셨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일제 말엽에 부여한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된다. 결국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하거나, 살아 출옥한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들은 옳았고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은 이 민족과 교회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어두운 시절을 비춘 산 위에 선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일, 부역한 인사들에 대한 평가에서 시대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제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 같지 않은 냉두리는 듣기도 딱하다. 분명한 것은 저들의 행위는 잘못이었고 또 참회하여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역사는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님과 교회는 참회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만, 변명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올바른 역사일 것이다. 교회는 새로 태어나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그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 신사참배 반대는 옳았고, 신사 앞

에 머리 숙인 일은 마땅히 참회해야 할 죄악이었다. 예수보다 일본 왕이 더 높다고 본의 아니게 말한 사람들은 그 죄악을 참회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태평양 전쟁이 말기에 들어서자 일제는 모든 면에서 물리기 시작하였다. 각지에서 일군이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을 때 광도(廣島 히로시마)와 장기(長崎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데다,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폭격하자 일본은 더 이상 지탱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8월 14일 자정부터 동경의 황실 지하실에서 열린 비밀회의에서 군부의 미국 본토 작전론을 물리치고 포츠담회담의 무조건 항복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튿날 15일 정오 일본 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연합국 앞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던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제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었고 35년간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던 우리 민족과 교회에 해방이 찾아왔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항일투사들의 피흘린 업적의 소산이었으며, 교회가 하나님께 피맺힌 간구를 계속한 데 대한 자애로운 응답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2023 - 2024 학년도

##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6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 5월 3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3년 8월 1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3년 8월 20일 예정 (추후 발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3@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3@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mailto: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크리스찬북뉴스서평] 본회퍼의 그리스도인 삶 안내서

# 본회퍼가 끝까지 저항했던 '옛 사람'이란

##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



본회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스티븐 니콜스 지음 김광남 역

다빈치출판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  
스티븐 니콜스 | 김광남 역  
아바서원 | 292쪽

절망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약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본회퍼

"이 책은 우리를  
본회퍼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십자가, 공동체,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풍성한 성찰을 제공한다."

에릭 메막시스는 디트리히 본회퍼 전기의 부제를 '목사, 순교자, 예언자, 스파이'라고 지었다. 독일의 악명 높은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교회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직접 본으로 보이고 글로써서 강력하게 촉구했던 본회퍼에게 '스파이'라는 오명(?)이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발키리 작전으로 알려진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본회퍼는 그 일에 가담한 이름들 사이에 언급되어 투옥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실제로 본회퍼가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파이'는 그의 가르침과 잘 맞아떨어진다. 본회퍼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세상 시민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적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그는 종교와 국가를 극단적으로 분리한 대다수 독일 기독교 리더들과 달리, 종교와 국가를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

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다. 1932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공동체의 기도' 중 본회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러나 새 땅은 현실적이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에, 새로운 약속의 땅에, 옛 창조의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말씀 안에서 증언하는 부활의 세계, 국가가 가리키는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열 상태 그대로 머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전부가 되실 것이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그러면 완전한 나라가 현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트리히 본회퍼, <성경의 기도서>(북있는 사람, 2023), 79p).

본회퍼는 세상을 부정하는 둔세주의자가 아니었고, 세상을 맹목적으로 쫓는 세속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 그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가르쳤던 사람이다.

2014년 아바서원에서 출간된 <본회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2023년 개정돼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로 제목과 부제가 뒤바뀐 채 출간됐다. 본회퍼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리포메이션 성경 대학 학장인 스티븐 니콜스로, 교회사를 탁월하게 가르치고 관련 저술을 많이 했으며, 본회퍼에 이어 최근엔 R. C. 스프로울의 전기를 쓰기도 했다.

이 책은 본회퍼의 삶보다 가르침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훈적이다. 본회퍼가 열정적으로 외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론(기독론), 교회론, 윤리학이 성경을 근간으로 굳건한 기둥처럼 받치고 서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적용과 교훈을 독자에게 거침없이 제시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바르게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니콜스는 본회퍼의 세계가 기독교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처형, 부활의 명백한 사실과 함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낸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처럼 겸손히 아버지께 의존하여 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고난을 끌어안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소망을 자기 소망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본회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학자였다. 오늘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성격을 띠는 기도, 성경, 고백, 성례가 공동체 안

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본회퍼다.

그는 사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느꼈을 것이다. 기도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한 기도이고, 성경은 피차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체의 고백으로 신학을 말과 삶으로 실현하고, 성례를 통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회퍼 사상의 가장 큰 장점은 세속성에 있는데(나쁜 의미가 아니라 바른 의미에서), 일과 결혼, 정부와 교회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춰 살다가, 대부분의 시간에는 땅에 맞춰 살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관계(결혼 생활을 포함하여), 세워진 국가나 교회 안에서의 활동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일터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국가와 교회에서도 주님은 최고 자리에 앉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본회퍼는 저항 신학자로 알려졌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악한 정부에 대항했



1944년 7월 20일에 벌어진 히틀러 암살 및 나치정권 전복시도에 가담했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Duquesne 대학

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본회퍼를 인용하며 저항을 요구하고 두둔하려 한다.

하지만 스티븐 니콜스가 이 책을 통해 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본회퍼의 저항은 궁극적으로 국가나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옛 사람,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흐르는 죄인의 본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악인의 성질에 대한 거룩한 반항이 본회퍼 사상의 핵심이었다.

요컨대 나는 나를 바꿀 뿐이고, 그렇게 공동체가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가 변화되는 일에 앞장서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겠는가? 먼저 그 길을 뒤따른 본회퍼의 바른 안내를 이 책을 통해 받아보라.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무엇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23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PROVERBS 4:23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上)

# <성난 사람들>로 보는, 미국 이민자들 속 한인교회 역할

이민 2세 고달픈 삶 그려낸 드라마  
정형화된 유교사상 악영향 보여줘  
극복 과정 속, 한인교회 역할 조명  
한국 정체성과 공동체성 유지시켜

◆재미교포의 삶과 책임감: 동아시아계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불안한 정체성과 책임의식

<성난 사람들>(Beef)은 미국 내 동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의 고달픈 삶을 그려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이다.

중년에 접어드는 한국·일본·중국계 미국인들이 혈연·친분·원한·치경 등으로 얽혀 좌충우돌하는 블랙코미디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 그리고 베트남-중국계 미국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엘리 윙이 주연을 맡았다.

드라마 줄거리는 30대 중반 한국인 재미교포 2세 대니 조(스티븐 연 분)와 비슷한 나이의 중국계 미국인 에이미 라우(엘리 윙 분), 두 사람의 갈등이 핵심을 이룬다.

별볼 일 없는 집수리 기술자 대니,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남편·시아머니와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에이미는 어느 날 쇼핑물 주차장에서 서로 시비가 붙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한 보복운전을 감행한다.

그리고 이 사소한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서 두 사람의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진다.

<성난 사람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인종적으로 미국 사회 소수 계층인 동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이 겪는 유교적·동아시아적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압박이 이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작품 내에서 두 주인공을 비롯한 동아시아계 미국인들을 괴롭히는 주범은 백인이나 흑인들에 의한 인종차별이 아니다. 정작 동아시아계 이민자 자손들을 고달프게 하는 주범은 그들에게 주입된 동아시아적 가치와 자화상이다.

대니는 가업을 이어받은 장남으로 막대한

책임감에 짓눌려 살고 있다. 이민 1세대인 부모님은 미국에서 모텔을 운영했으나, 불운한 일에 휘말려 모텔 소유권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가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부모님은 그나마 한국에서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지만 어려서부터 미국인으로 자라온 그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대니는 동생 폴을 데리고 미국에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사정, 어설픈 집수리 기술, 그리고 형편없는 인맥 등으로 번번이 좌절을 맛보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시비가 붙은 에이미에게 복수를 시도하다 우여곡절 끝에 한인교회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에이미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낸다.

에이미 역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 그녀는 저명한 예술가 아버지를 둔 일본계 미국인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가난을 떨쳐내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해 악착같이 사업에 몰두해 경제적 성공을 얻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예술적 위명에 눌러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을 잘 돌봐주지도 못할뿐더러, 딸에 대해서도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할까 전전긍긍한다. 남편은 자신의 갤러리에 고용된 백인 미녀 직원과 바람이 나기 직전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사업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고상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모양새로 자신을 포장한다.

◆재미교포의 삶과 한인교회: 한인들의 안전망이자 심적 피난처인 한인교회

대니와 에이미 두 사람은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정형화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 마음 속에 커다란 짐을 떠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간다. 이들이 지닌 책임은 동아시아 문화권 가정에서 각각 장남과 아내에게 맡겨진 전통적 형태로 고착화되어 있다. 이 책임은 그들의 가족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자의식 자체에 의해 삶에 부여되어 지속적인 압박감을 준다.

대니가 이 압박감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한인교회이다. 대니 어머니는 그에게 한



미국 내 동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의 각박한 삶과 불안감을 소재로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성난 사람들>.

인교회에서 좋은 한국계 여성을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리라고 여러 차례 그녀의 바람을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대니에게는 그저 부담되는 일일 뿐이다.

그는 잘 풀리지 않는 사업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에이미에 대해 깊어지는 원한 때문에 갈광질광하던 중 예전 한인교회를 같이 다녔던 베로니카를 만나게 되고, 그녀로부터 그녀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한인교회 전도지를 받는다. 그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찬양집회에 참석한다.

이 집회에서 그는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 선율과 가사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설움을 토해낸다. 이후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자원해서 교회 봉사도 하려고 한다. 여기서 대니의 마음은 반반으로 나뉜다. 그는 절반쯤은 교회에 진지하게 정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헌금을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데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교회 예배당을 비롯해 건물과 시설 곳곳이 낡은 것을 보고 담임목회자에게 교회 수리를 제안한다. 교회에서 수리에 필요한 자재비를 제공하면, 대니가 인력 비용은 받지 않고 교회 시설 보수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침 교회 시설 보수가 필요하고, 대니가 교회에 정착해서 무임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기꺼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제안에서 대니가 노린 것은 교회가 준 자재비는 자기 사업에 쓰고, 대신 자신이 아는 선배 교포가 훔친 자재를 사용해 교회 건물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의도는 불순하지만 어쨌든 대니는 교회 건물 보수를 무사히 마쳤고, 이후 교회 출석도 꾸준히 하면서 찬양팀 리더까지 맡아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도 궤도에 올라 부모님을 모실 새 집까지 번듯하게 건축하게 된다.

<성난 사람들>은 대니의 행적을 통해 한국

인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인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는 이민자들 사이,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의 확고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근거지가 되어준다.

인종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한인들에게 이런 네트워크는 곤란에 처했을 때나 위급할 때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주곤 한다. 또 젊은 교포들은 한인교회 내부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한인교회는 이민자나 그 자녀가 느끼는 여러 정서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 한인교회 예배는 이민자들과 교포들이 백인들과 흑인들로부터 받는 은근하거나 노골적인 차별, 이방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여러 심적 어려움과 소외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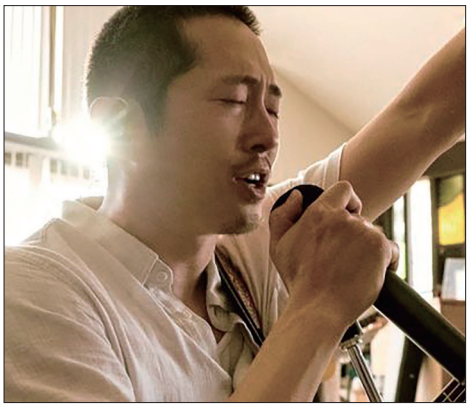
<성난 사람들>은 한인교회가 가진 이 순기능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물론 한인교회에 얽힌 부정적이고 불미스러운 면모들, 특히 작중 대니처럼 교회 내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작품과 유사하게 미국에 이민을 간 한인 가족의 삶을 묘사한 <미나리>에서처럼 한인교회가 극단적으로 나쁘게 그려지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성난 사람들>의 한인교회 묘사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근래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한국과 미국 간 통신이 과거처럼 어렵지 않게 때문에, 한인교회가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과 교포들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차지했던 지배적 위치를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자들과 교포들이 가진 한국계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한인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교회 봉사를 통해 교포 청년들과 친교를 회복하는 대니.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0%이자가

**NEW 2023 HYUNDAI IONIQ 5 SE**

#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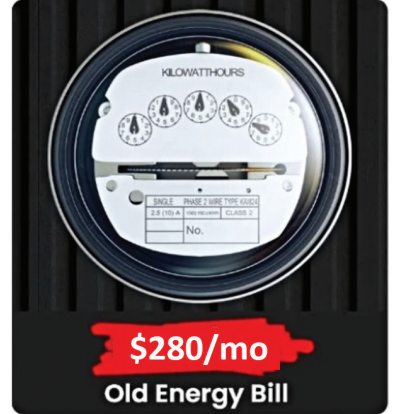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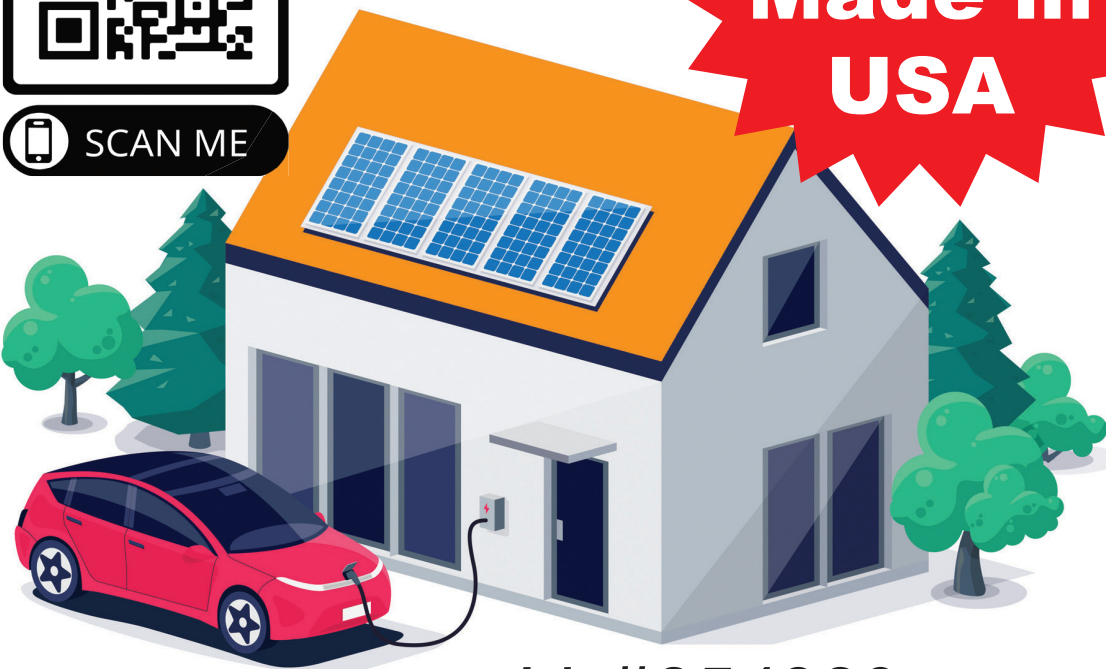
**전기세가 11달러?!**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